

“사흘간 폭설, 강수량 8mm 불과”...광주·전남해갈 역부족

‘물기 없는’ 눈, 20cm 안팎 내려도 가뭄해소 효과 미미
 식수원 저수율 연일 감소... “집중호우 아니면 장기화”

광주·전남에 사흘간 최고 20cm 안팎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가뭄 해소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후 최심 적설량은 무안 해제 20.4cm, 신안 압해 19.3cm, 광주 남구 18.8cm, 함평 월야 18.8cm, 영

광 18.7cm, 광주 광산 18.0cm, 무안 운남 16.6cm, 장성 15.1cm, 화순 16.3cm 등으로 집계됐다.
 최심 적설량은 눈이 가장 많이 온 순간 집계된 적설량을 뜻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 18일 오전 9시 남구 일대에서 측정된 18.8cm가 가장 많은 적설량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물기가 없는 마른 눈인 이른바 ‘건설’(가루눈)이 내린 탓에 가뭄 해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릴 당시의 기상 상황과 눈송이 머금은 습도 등을 분석해 ‘건설’과 ‘습설’(함박눈)로 분류한다.
 영하권 온도에서 습기를 머금지 않은 상태로 내리는 ‘건설’은 적설량의 30분의 1 정도를 강수량으로 환산한다.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은 강수량 치환 기준이 적설량 대비 10분의 1 정도다. 지난 사흘간 광주·전남에 내린 눈

을 ‘건설’ 환산 기준에 따라 강수량으로 바꾸면 강수량은 6~8mm에 불과하다. 광주시 식수원인 동북댐이 있는 화순 지역의 경우 사흘간 내린 눈이 비로 따지면 4mm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잇단 폭설에도 상수원 저수율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동북댐 저수율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7.32%다. 저수량은 전체 9500여 중 2512만4000t에 불과하다. 폭설 전날인 지난 16일 2550만t부터 매일 10~14만t씩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민의 젖줄인 순천 주암댐도 이날 오

전 기준 저수율이 30.1%(2억1000t)에 그쳤다. 특히 순천은 지난 사흘간 적설량이 1cm 미만인 불과해 강수량 계산이 무의미하다.
 당국은 집중 호우가 아닌 이상 당분간 해갈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통상 비가 100mm 정도 내릴 때 저수율이 10%가 차오른다고 계산한다. 지난해 11월 말 동북댐 저수율은 70% 안팎을 유지했다”며 “약 400mm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정승호기자

국민 66% “한국 문화 이미 선진국 수준”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의 19세~79세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가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포인트(p)가 상승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되는 분야로 문

화(65.9%)가 꼽혔다. 반면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가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가 56.4%로 가장 많았다.
 삶의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43.4%로 ‘올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하다’고 답한 국민이 65%로 2008년 이후 지난 14년간 ‘중상’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유나기자



눈이 그린 그림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9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서 바라본 남도 명산 국립공원 월출산이 내린 눈을 뒤집어쓴 채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하고 있다.

광주 도심 건물 바닥서 균열·뒤틀림...30여명 대피

출입 통제·건축 안전 긴급 진단

광주 도심의 한 사무 건물에서 바닥재 균열·뒤틀림 현상이 발생해 입주업체 직원 등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관련기사 8면)**
 19일 광주경찰청·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6층 규모 건물에서 ‘5층 바닥 건축재에 금이 가고 뒤틀려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입주 기관·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5층 내 사무실에는 바닥재가 눈에 띄게 들려 있거나 금이 가 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업체 직원들은 “무거운 의자가 떨어지는 느낌이 났다”,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건물에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소방 당국·지자체 건축 담당자가 합동으로 건물 안전 진단을 벌여 자세한 원인·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겨울철 실내의 온도차가 커 압착제 약화로 바닥 타일이 들뜬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건축물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환기자

코로나 7일 격리 의무도 풀리나... “마스크와 연계해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월에 논의했던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이번에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겨울 재유행이 지나간 뒤 4급으로 낮아지면 격리 의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4급 감염병에 속한다.
 최이슬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